

# 찾아가는 문화예술학교 4월부터 추진

도교육청, 30억원 투자  
도내 예술단체와 추진단 발족  
학교 180곳 소규모 예술체험  
시군별 대규모 체험 2회씩  
참가 문화예술단체 공개 모집

전북도교육청이 4월부터 도내 예술단체와 손을 잡고 '찾아가는 문화예술학교'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총 30억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전북도교육청은 25일 오후 3시 30분 전북도립국악원, 우진문화재단, 전북민예총 등 도내 문화예술단체 관계자, 이해숙, 최영규 도의원과 교사가 참여한 가운데 '찾아가는 문화예술학교 추진단'을 발족했다.

발족식과 함께 가진 회의에서 올해 4월부터 소규모 문화예술체험 180개 학교, 14개 시군별 대규모 문화예술체험행사 2회씩을 갖는 '찾아가는 문화예술학교'를 추진하기로 했다. 문화예술 경험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음악, 무용, 연극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체험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둔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번 프로젝트에 참가할 문



전북도교육청은 25일 오후 3시 30분 전북도립국악원, 우진문화재단, 전북민예총 등 도내 문화예술단체 관계자, 이해숙, 최영규 도의원과 교사가 참여한 가운데 '찾아가는 문화예술학교 추진단'을 발족했다.

화예술단체를 공개 모집하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민화 등 10개 분야를 공개 모집을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단체에 대한 소규모 문화예술 체험행사엔 1회당 300만원, 대규모 문화예술행사엔 1회당 3000만원 등 총 30억원을 지원한다.

전북도교육청은 2월까지 참가 문화예술단체를 공개모집하며 맞춤형, 선택형, 순회형 등 3가지 유형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맞춤형은 학교 요구에 따라 문화예술단체가 소규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선택형은 문화예술단체가 개발한 소규모 프로그램을 학교가 선택하는 방식이다. 또 순회형은 지

역을 순회하는 대규모 문화예술행사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문화예술단체 자격은 최근 2년 이내 지자체와 공공기관, 한국문화예술회연합회 등의 문화예술사업을 시행한 실적이 있거나 문화예술단체로 등록된 단체다. 또 소규모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은 전북도내 단체로 한정한다. /김민근 기자



## 일상 속 원시적 우주 회귀 연어의 강렬한 생명력

전북도립미술관 류지선 개인전

전북도립미술관(관장 김은영) 서울관은 오는 29일까지 류지선의 '일상 속 원시적 우주로 회귀하는 연어의 강렬한 생명력'전을 갖는다.

류지선 작가는 파편화된 도시의 욕망을 따라가다 보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근원적 질문을 잊게 된다고 말한다. 그로 인해 자신이 존재하는 일상의 우주를 망각하고 허상을 좇게 된다는 것.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도시화·산업화·첨단화의 여정에서 상실된 일상의 원시적 우주를 그려내고 있다.

그는 색채를 머금은 세밀한 '선'을 통해 우리의 자화상을 들춰내 보인다. 그림 속 '선'은 원시적 우주를 탐험하는 여정으로 묘사된다.

원시적 우주는 종전연색으로 펼쳐지며 생동하는 선으로 이어진다. 선은 강한 생명력을 발산하며 파편화된 일상에선 보이지 않던 것들로 표면화 된다. 장미 꽃잎·대나무 숲·하늘·강·바다·산·강·도시의 불빛이 강렬하게 되살아나며, 일상은 회복되고 치유가 일어난다.

작품에는 이 같이 원시적 우주에 대한 진한 그리움과 회귀 본능이 강렬하게 배어 있다. 작가에게 있어 원시적 우주는 인간·자연·우주가 함께 어우러지며 조화를 이루는 세상이다.

이러한 통합과 공존의 세계는 추억의 끝에서 희미하고 몽환적으로 그려지지만, 다른 한편으로 시간과 공간의 벽을 넘어 한없이 투명하고 맑게 그려지고 있다.

작가는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회화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이번 전시는 작가의 여섯 번째 개인전이다. /정해은 기자

### ▶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1월 넷째주 상영작 공개

## 용산 참사 이후의 사람들의 기억

-공동정범-

## 뉴욕에서 벌어지는 엇갈린 사랑

-원더 힐-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전주영화제작소·4층)은 용산 참사 이후의 사람들의 엇갈린 기억을 추적하는 '공동정범'과 뉴욕 코니아일랜드를 배경으로 세 남자의 엇갈리는 사랑을 그린 '원더 힐'을 1월 넷째 주 작으로 선보인다.

'두 개의 문'의 스피노프(기존의 영화에서 등장인물이나 설정을 가져와 새로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것) 다큐로 화제를 모은 영화 '공동정범'은 용산 참사가 벌어진 그날의 망루에서 살아 돌아왔지만 여전히 고통에 짓눌린 삶을 사는 이들의 엇갈린 기억을 추적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용산 참사 9주기를 맞아 개봉하는 '공

공동정범'은 두 개의 문이 들여다본 용산 참사 당일의 이야기를 넘어 이후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상황들에 주목하고 있다.

철거민을 단순히 신성한 피해자로서 유형화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피해자와 가해자를 넘나드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아내며 다큐멘터리로서의 진일보한 면모를 보여준다. 김일란·이혁상 감독이 공동연출을 맡았다.

우디 앨런 감독의 신작 '원더 힐'은 한동안 유럽에서 작품 활동을 하던 우디 앨런이 헐리웃과 뉴욕을 오가며 연출한 작품.

영화는 1950년대의 낭만이 고스란히



공동정범 포스터



원더 힐 포스터

담긴 유원지 코니 아일랜드를 환상적이고 다채로운 느낌으로 구현한다. 원더 힐은 코니 아일랜드를 상징하는 대관람차로, 복잡한 일들과 극적인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공간으로 작용한다.

원더 힐은 '카페 소사이어티'의 촬영 감독을 맡았던 촬영감독 비토리오 스토라로와 다시 합을 맞추며 우디 앨런 영화 중에 가장 아름다운 영상이 담긴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웨이트리스 지니 역으로 주인공을 맡은 케이트 윈슬렛의 연기는 앨런의 전작 '블루 제스민'으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았던 케이트 블란쳇의 연기에 필적하는 명연기로 찬사를 받았다.

/정해은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 우일기업 권경미 대표, 전주YWCA 회장에 선출

전주YWCA는 23일 정기총회를 열고 권경미(유)우일기업 대표(사진)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임원 선출 및 공로패 수여와 함께 2017년도 결산 및 2018년도 예산을 심의했다.

권 신임회장은 전주YWCA 프로그램사회문 제부위원회 위원(2006~2008), 전주YWCA 이사(2009~), 전주YWCA 부회장(2016~2017) 등을 역임했다.

신임 부회장으로는 이정선(57년생), 신유순(62년생) 이사가 선출됐다.

한편 전주YWCA는 한국YWCA 프로그램정책에 따라 올해는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탈핵으로 생명평화, 성평등으로 정의를 주제로 사업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탈핵생명운동', '성평등운동', '평화통일운동', '청(소)년운동' 4대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은빛 설원을 가로질러

제 4 회 전국 스키·스노보드 대회

무주군 체육회장배

2018년 1월 30일(화)~1월 31일(수)

무주 덕유산리조트 스키장

▲참가자격: 스키(만 10세 이상), 스노보드(고교생 이상)  
 ▲참가접수: 이메일(jmaeil1@hanmail.net) 또는 팩스(063-288-9703), 홈페이지(www.jmaeil.com)

▲주최: 전주매일신문, 무주군 ▲주관: 전북스키협회 ▲후원: 전북도, 무주스키협회, 무주덕유산리조트 ▲문의: 전주매일신문 문화사업국(063-288-9700)